

국민기자석



89.5.2

인신매매 강력 단속을 산골서도 납치 잇따라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인신매매라는 말이 무슨 유행어처럼 떠돌고 있다.

한때 대도시에서 간혹 일어났던 매매단의 마수가 이제는 조용한 산골마을에까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무섭고 두렵다.

며칠 전 임실군 지사면에서는 대낮에 젊은 부인 한 명이 정체 불명의 봉고차에 납치되어 갔다고 한다. 었그제 이곳 장수군 산서면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귀가 길에 낯선 사내들에 의해 봉고차에 강제로 태워지려다가 마침 뒤따라 오던 같은 마을에 사는 한 할아버지에 의해 천만다행으로 위기를 면한 일이 있었다.

잠시도 마음놓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다. 낯선 자동차나 낯선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 반사를 뿌리치고 숨바꼭질하듯 숨어야 할 판국이다.

도대체 이 땅의 치안력은 어디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일까.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러낸 나라 그 밑바탕이 되었던 막강한 치안력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올림픽에 동원됐던 치안력을 민선 치안에 전력 투입하겠다는 당국의 다짐과 약속은 헛공약이었던 것 같다.

학생들의 시위나 농민·노동자들의 농성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가차없이 진압하면서 그런 시위나 농성보다도 더 시급하고 기필코 막아내야 할 인신매매단의 검은손에는 왜 그렇게 속수무책인지 모르겠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국에 간절히 호소하건대 그러한 흉악 범죄의 뿌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해주기 바란다. 또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마련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인신매매의 근절 없이 우리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정진섭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사리 185>